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대처행동 특성

Characteristics of Mothers' Coping with Marital Conflict and Child-Rearing Stress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민 하 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김 경 화**
Dept. of Child, Catholic Univ. of DaeGu
Assistant Professor : Min, Ha-Yeoung
Division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 of DaeGu
Associate Professor : Kim, Kyong-Hw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atterns of coping with marital conflict and child-rearing stress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The participants were 166 mothers of children who were between 3 years and 7 years of age, living in the North Kyongsang Province. Paired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partial correl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n those situations where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marital conflict and child-rearing stress, they were more likely to use an avoidance coping strategy than an approach coping strategy.

(2) Among the mothers who were experiencing marital conflict or child-rearing stress, the group that suffered a higher level of stress was more likely to employ an avoidance coping strategy.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approach coping behavior by the level of stress.

(3) When the level of marital conflict and child-rearing stress were controlled, approach coping behavior with marital conflict was still moderately correlated with approach coping behavior with child-rearing stress.

▲주요어(Key Words) :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자녀양육 스트레스(child-rearing stress), 어머니의 대처행동 특성(characteristics of mothers' coping), 접근적 대처행동(approach coping), 회피적 대처행동(avoidance coping)

Ⅰ. 서 론

1950년대 Selye의 생활 스트레스 논문 이후 스트레스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등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의 주요 변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신체 및 심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영향이 대처행동에 의해 중재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1980년대를 기점으로 대처행동의 중요성이 스트레스 연구에서 강조되기 시작했다(Costa, Somerfield, & McCrae, 1996).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가 비록 1980년대 들어 관심을 받기 시작했지만, 정신분석학적 입장의 자아분석가들에 의해 이미 '방어행동'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었다(Parker, & Endler, 1996). 따라서 초기 대처행동 연구에서는 방어행동에서 강조되었던 성향적 시각이 자연스럽게 강조되었다. 대처행동의 성향적 시각이란 개인의 인성특성이나 특질처럼 대처행동도 일련의 성향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어

* 주 저 자 : 민하영 (E-mail : hymin@cu.ac.kr)
** 교신저자 : 김경화 (E-mail : kwkim@cu.ac.kr)

느 정도 일관된 행동 특성을 지닌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초기 대처행동 연구에 관한 성향적 시각은 과학적 방법보다 직관적 방법에 기초했다는 방법론적 문제 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했다. 대처행동의 성향적 시각은 첫째, 스트레스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대처행동 반응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 대처행동이 개인의 인성 특성이나 특질처럼 안정된 성향을 지녔다고 보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통해 적응적으로 대처하려는 인간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스트레스가 유발된 상황적 맥락이나 사회적 지지망 등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간과함으로써 대처행동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민하영, 1999).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1980년대 들어 인지 현상학적 입장에서 대처행동을 상황적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Lazarus와 Folkman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Lazarus와 Folkman은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대처행동이 변화한다고 지적하면서, 대처행동도 개인의 인성특성이나 특질처럼 일련의 안정된 특성을 나타낸다고 지적한 대처행동의 성향적 시각을 반박하였다. 따라서 Lazarus와 Folkman 등을 중심으로 한 상황적 시각의 연구자들은 대처행동의 일반적 성향이나 유형을 규명하기보다 구체적 상황에서 각각 나타나는 대처행동 반응이나 전략을 파악하는데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연구방법의 개발과 정교화를 토대로 스트레스 상황간 대처행동의 일관성이 보고(민하영, 유안진, 2000; 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Gamble, 1994; Terry, 1994)됨으로써 대처행동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보다 일련의 성향성을 갖는다는 주장(Beutler & Moos, 2003)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하영과 유안진(2000)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도 스트레스 상황간 일련의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민하영과 유안진(2000)은 부모관련 및 친구-소외 관련, 친구-갈등 관련 그리고 학업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처행동 사이에 .40 이상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스트레스 상황간 대처행동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음을 지적했을 뿐 스트레스 상황간 나타나는 대처행동의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상황간 나타나는 대처행동의 유상성은 대부분 개인의 인성 특성으로 설명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인성 특성이 양육 환경에 의해 영향받음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의 대처행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안정된 성향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 환경으로 설명될 수 있다. 관찰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학습이론을 고려해 볼 때, 스트레스 상황간 나타나는 아동의 안정된 일련의 대처행동 성향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특성과 유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관성을 근거할 연구 자료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어머니의 대처행동 양상을 규명(이미영, 박혜인, 1995; 전겸구, 김교헌, 2003; 최규련, 1994)하거나 대처행동이 심리정서적 건강이나 결혼 만족도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히는 것(이선미, 전귀연, 2003; 이영자, 장영애, 2002)에 집중되고 있을 뿐, 스트레스 상황간 나타나는 어머니의 대처행동 특성을 밝힌 연구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상황간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음을 밝힌 연구 자료가 있다면, 아동의 대처행동 성향을 아동의 주 관찰대상자이며 양육자인 어머니의 대처행동 특성과 연결시켜 살펴 볼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대처행동 연구는 주로 부부갈등에서의 대처행동이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서의 대처행동 등 개별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처행동을 독립적으로 살펴보고 있을 뿐, 스트레스 상황간 나타나는 어머니의 대처행동 특성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어머니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간 연계성을 탐색해 보는 추후 연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녀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상황간 나타나는 어머니의 대처행동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상황은 자녀양육 스트레스나 부부갈등 또는 고부간 갈등이라 할 수 있다(강희경, 2003; 신숙재, 1997; 전겸구, 김교헌, 2003; 최정미, 우희정, 2004). 이중 부부갈등이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고부간 갈등과 달리 대부분의 일반 가정 어머니들이 생활 안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곤란함과 어려움을 자녀양육 스트레스라 한다면, 부부갈등은 배우자와 상충되는 기대, 욕구, 목표의 불일치로 인해 겪는 긴장과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부부갈등은 성격 요인, 의사소통 요인, 성적 요인, 역할 요인, 경제적 요인, 인척 요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선미, 전귀연, 2003; 최규련, 1994).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부부갈등 중 성격 요인으로 인한 부부갈등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성격 요인일 뿐 아니라 아버지인 남자보다 어머니인 여자가 배우자의 성격 요인으로 인해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송말희, 1990; 이영자, 장영애, 2002)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부부갈등이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처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마다 다르나, Lazarus와 Folkman(1984)은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과 정서 중심적 대처행동으로 구분하였다.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문제에 직면하여 계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지 행동적 노력을 포함한다. 정서 중심적 대처행동은 직면한 스트레스 사건보다 스트레스 사건으로 유발된 부적인 정서 반응을 조절하려는 인지 행동적 노력이 포함된다. Roth와 Cohen(1986)은 대처방법에 초점을 두고 접근적 전략과 회피적 전략으로 대처행동을 구분하였다. 접근적 대

처전략은 스트레스 유발자극에 접근해 가는 인지, 정서 및 행동적인 활동으로 정보나 사회적 지지 추구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회피적 대처 전략은 스트레스 유발 자극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극으로부터 멀어지는 대처 방식으로 당면 문제를 부정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감정을 이동시키는 전략 등이 속한다. Lazarus와 Folkman(1984)의 대처행동 범주와 Roth와 Cohen (1986)의 대처행동 범주는 내용상 차이를 나타내지만, 문제 중심과 접근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 유발 자극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점에서, 정서 중심과 회피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 자극을 피하거나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려한다는 점에서 기능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Moos & Moos, 1993). 이러한 이원적 전략들 즉 문제 중심이나 정서 중심적 대처행동 또는 접근적 대처나 회피적 대처행동은 대부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흔히 함께 사용되어진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유형의 대처 노력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원적 대처행동 중 스트레스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가능한 상황인 경우라면, 문제 중심이나 접근적 대처행동이 정서 중심이나 회피적 대처행동보다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되고 있다(김교헌, 전겸구, 1993). 기적을 바란다든지, 운명으로 돌린다든지, 스트레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거나 우는 등의 행동을 통해 감정을 표출하는 등의 대처행동은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불편감을 줄이는데 긍정적일 수 있지만,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정서나 사회적응 측면에서 부정적이라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부부갈등이나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머니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가 또는 문제의 직접 해결보다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려는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어머니들의 대처행동 특성 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건강성을 간접적이나마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Roth와 Cohen (1986)의 대처행동을 토대로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각 접근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 중 어떤 대처행동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대처행동이 나타난다고 지적한 Lazarus와 Folkman 등의 상황적 시각을 기초로 하여, 부부갈등이나 자녀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대처행동 사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을 위해롭거나 위협적이라 더 평가하고 있음(1차적 평가단계)을 의미하는 것이며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자원이나 자신의 대처능력이 부족하다고 더 많이 평가하고 있음(2차적 평가단계)을 의미하는 것임(Kaplan, Sallis, & Patterson, 1993; Lazarus, 1991)을 생각할 경우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대처행동 차이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1차적 평가, 2차적 평가)에 따라 대처행동이 영향받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상황간 나타나는 어머니의 대처행동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부부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접근적 대처행동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접근적 대처행동간 상관관계 및 각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회피적 대처행동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부부갈등이나 자녀양육 스트레스 변인을 통제한 후 부부갈등이나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접근적 대처행동간 또는 회피적 대처행동간 상관관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라 할 수 있는 부부갈등이나 자녀양육 스트레스 정도를 통제한 이후에도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접근적 대처행동간 그리고 회피적 대처행동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유지된다면, 스트레스 상황간 나타나는 어머니의 대처행동에 일련의 성향성이 있음을 좀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부갈등 또는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접근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부갈등 또는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접근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은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접근적 대처행동간 또는 회피적 대처행동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1)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접근적 대처행동간 또는 회피적 대처행동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2)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통제시,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접근적 대처행동간 또는 회피적 대처행동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스트레스 상황간 나타나는 어머니의 대처행동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대처행동 특성을 이해하는 자료일 뿐 아니라, 추후 아동의 대처행동과 어머니의 대처행동을 연결시켜 살펴볼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스트레스 상황간 나타나는 어머니의 대처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만3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29세에서 39세 사이 166명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만3세에서 만7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을 둔 어머니로 제한한 것

은 만3세에서 만7세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녀는 전적인 신체적 돌봄과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신체적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과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이라는 공통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통점을 토대로 자녀 연령을 제한한 것은 어머니가 경험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동질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 중 대졸이하는 67명, 대졸 이상이 97명(결측 2명)이었으며 자녀수가 1명인 사람이 42명, 2명 116명, 3명이 8명이었다. 이들 중 전업 주부는 70명이었으며, 취업주부 96명이었다.

2. 연구도구

1) 자녀양육 스트레스

Abidin(1990)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 PSI) 중 16문항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우리 아이는 고집이 세서 키우기가 힘들다', '우리 아이는 짜증을 잘 낸다' 등으로 구성된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 '거의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72로 나타났다.

2) 부부갈등

Grych, Seid와 Fincham(1992)이 개발한 부부갈등 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ersonal Conflict Scale: CPIC)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권영옥과 이정덕(1997)의 부부갈등 척도 및 송말희(1990)와 최규련(1994)의 부부갈등 척도를 참고로 성격적 측면에서의 부부갈등 척도를 구성하였다. '남편은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남편은 나를 무시한다'와 같은 6문항으로 이루어진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부갈등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성격으로 인한 부부갈등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3) 대처행동 척도

Roth와 Cohen(1986)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토대로 접근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을 구성하였다. 부부갈등의 대처행동의 경우 '남편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남편과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 울거나 글을 쓰면서 마음을 진정시킨다' 등의 접근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의 각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경우 역시 '아이 양육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아이 양육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 음악을 듣거나 글을 쓰거나 혼자 울면서 마음을 진정시킨다.' 등의 접근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의 각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5문항으로 이루어진 접근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은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접근적 대처행동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85, .87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회피적 대처행동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68, .6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만3, 4, 5세반 담임교사 및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의도를 설명한 후, 원아나 학생 편에 질문지를 가정에 가져가도록 했다. 배부된 200부 질문지는 일주일간의 수거기간을 두고 수거하였다. 수거된 질문지 중 부실기재된 질문지나 남편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아 부부갈등을 측정할 수 없는 질문지 34부는 제외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의 paired-t검증(쌍체 t검증), 일원변량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및 부분상관계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유의수준 α<.05에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자료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접근접-회피적 대처행동간 차이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접근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쌍체 t검증한 결과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갈등 상황에서의 접근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aired t=-7.74, p<.001).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접근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 사이에도 나타났다(paired t=-10.16, p<.001).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은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접근적 대처행동보다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이나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 직면 시, 직면한 스트레스 사건을 직접 다루기보다, 직면한 사건을 회피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1>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접근적-회피적 대처행동간 쌍체 t검증

스트레스 상황	대처유형	평균(표준편차)	paired-t값
부부갈등	접근적 대처행동	13.24(2.60)	-7.74***
(접근-회피)	회피적 대처행동	14.94(2.29)	
자녀양육	접근적 대처행동	12.40(2.62)	-10.16***
(접근-회피)	회피적 대처행동	14.99(2.11)	

주1) *** p<.001

<연구문제 2> 부부갈등 또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어머니의 접근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 차이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대처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상하위 30%를 기준점으로 하여 부부갈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그리고 중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자녀양육 스트레스 역시 상하위 30%를 기준으로 하여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그리고 중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2> 부부갈등 또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어머니의 접근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의 일원변량분석

스트레스 상황	스트레스 수준	SS	df	MS	F
부부갈등	집단내	37.60	2	18.80	2.83
접근	집단간	997.39	150	6.63	(df=2,150)
	전 체	1034.99	152		
부부갈등	집단내	60.93	2	30.47	6.18**
회피	집단간	734.12	149	4.93	(df=2,149)
	전 체	795.05	151		
자녀양육	집단내	10.98	2	5.49	.77
접근	집단간	1012.37	142	7.13	(df=2,142)
	전 체	1023.35	144		
자녀양육	집단내	42.23	2	21.12	5.11**
회피	집단간	569.91	138	4.13	(df=2,138)
	전 체	612.14	140		

주1) ** p<.01

<표 3> 부부갈등 또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어머니의 접근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의 Scheffe' 검증

스트레스 상황	스트레스 수준	접근적 대처행동 평균(SD)	회피적 대처행동 평균(SD)
부부갈등	낮음	12.75(2.47)	14.67(2.10) a
	중간	13.06(2.67)	14.33(1.72) a
	높음	13.94(2.59)	15.82(2.74) b
자녀양육	낮음	12.23(2.38)	14.80(1.61) a
	중간	12.79(2.23)	14.56(1.33) a
	높음	12.14(3.24)	15.82(2.78) b

각 집단 구분 후 부부갈등에 따른, 그리고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접근적 대처행동과 회피적 대처행동을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접근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회피적 대처행동은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Scheffe' 사후검증 결과를 <표 3>에서 살펴보면, 부부갈등 스트레스 상황($F_{(2,\ 149)}$=6.18, p<.001)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F_{(2,\ 138)}$=5.11, p<.001)으로부터 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접근적-접근적 대처행동간 또는 회피적-회피적 대처행동간 상관관계

스트레스 상황간 대처행동의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접근적 대처행동간, 회피적 대처행동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표 4>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접근적 대처행동간, 회피적 대처행동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부갈등에서 접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어머니는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접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12, p<.001).

<표 4>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접근적-접근적 대처행동간 상관관계

상관관계	자녀양육 스트레스: 접근적 대처행동
부부갈등: 접근적 대처행동	.512*** (n=150)

주1) *** p<.001

<표 5>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회피적-회피적 대처행동간 상관관계

상관관계	자녀양육 스트레스: 회피적 대처행동
부부갈등: 회피적 대처행동	.524*** (n=148)

주1) *** p<.001

<표 6>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변인 통제 시,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회근적-접근적 대처행동간 상관관계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변인 통제 시, 부분 상관관계	자녀양육 스트레스: 접근적 대처행동
부부갈등: 접근적 대처행동	.499*** (n=135)

주1) *** p<.001

<표 7>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변인 통제 시,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회피적-회피적 대처행동간 상관관계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변인 통제 시, 부분 상관관계	자녀양육 스트레스: 회피적 대처행동
부부갈등: 회피적 대처행동	.499*** (n=133)

주1) *** p<.001

뿐만 아니라 부부갈등 상황에서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어머니는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24, p<.001). 스트레스 상황간 일관되게 나타나는 대처행동 특성을 보다 분명히 살펴보기 위해, 부부갈등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적 요인을 통제한 후 스트레스 상황간 대처행동의 관계를 부분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표 6>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되는 접근적 대처행동간(r=.499, p<.001) 및 회피적 대처행동간(r=.499, p<.001) 상관계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처행동이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스트레스 상황간 어느 정도 일관성있게 나타남을 시사하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만3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막내자녀를 두고,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대구경북지역의 166명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하는 대처행동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머니들은 접근적 대처행동보다 회피적 대처행동을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한가지 유형의 대처행동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 중심의 접근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서 중심의 회피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을 뿐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부부갈등이나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한 어머니들은 문제 중심의 접근적 대처행동보다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을 조절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려는 대처행동을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부갈등 문제에 대해 '문제해결방안 모색'보다 '하소연'이 가장 보편적인 대처행동이었다고 보고한 이미영, 박혜인(1995)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 모두에서 회피적 대처행동이 문제 중심의 접근적 대처행동보다 선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회피적이며 정서 중심의 대처행동이 적극적이며 문제 중심의 대처행동에 비해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설명하는 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각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적 대처행동을 선호하는 어머니들의 심리정서 및 사회적 부적응 가능성을 추후 연구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적 대처행동이 부부갈등 수준에 따라 또는 자녀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대처행동이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나타난다고 지적한 Lazarus와 Folkman 등의 상황적 시각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대처행동이 상황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또한 스트레스 상황이 자신의 능력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될수록 회피적 또는 정서 중심의 소극적 대처행동 사용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결과(민하영, 1999; Compas, et al., 1988; Valentier, Holahan, & Moos, 1994).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한다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낮은 통제감을 갖을 수 있음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한편 접근적 대처행동의 경우 부부갈등 수준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회피적 대처행동과 달리 문제 중심의 접근적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어머니들이 가족 관련 스트레스 상황 직면시 문제 중심의 접근적 대처행동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트레스 상황 직면시 어머니들은 다양한 대처행동을 사용하지만, 부부갈등이나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 등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가족 관련 스트레스 문제의 경우, 스트레스 수준과 관계없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본적으로 문제 중심의 접근적 대처행동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간 접근적 대처행

동은 r=.512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변인을 통제했을 때도 부부갈등 상황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난 접근적 대처행동간 상관관계는 r=.499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적 대처행동에도 매우 동일하게 나타났다.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간 회피적 대처행동은 r=.524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부부갈등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변인을 통제했을 때도 부부갈등 상황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난 회피적 대처행동간 상관관계는 r=.499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상황간 유사하게 나타남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직면한 문제 상황의 스트레스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대처행동간 .50정도의 상관관계가 여전히 나타나는 것은 어머니의 대처행동 사용이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다하더라도 개인이 지니는 대처행동 성향에 좀 더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어머니의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상황간 어느 정도의 일관된 성향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배우기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어머니들이 일관된 행동 관찰 모델로 충분히 역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두통이나 근육통, 소화불량, 만성피로 등 신체적 증상(Cohen, Tyrrell, & Smith, 1993)이나 천식이나 고혈압과 같은 신체적 질병(Lepore, Palsane, & Evans, 1991)을 일으킬 뿐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 및 학교 적응과 같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옥주, 2004; Carson, Swanson, Cooney, Gillum, & Cuningham, 1992; Ebata, & Moos, 1991)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스트레스 자체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이 신체 및 심리 정서적 문제와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보고(Moos & Schaefer, 1993)를 기초로 최근에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느냐 보다 직면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아동들에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가를 교육하고 학습시켜야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Frydenberg, 2004; Johnson, & Johnson, 2002).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머니들의 대처행동에 일련의 성향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한 이 연구는 스트레스 상황간 나타나는 어머니들의 일관된 대처행동이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사용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변인일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아동의 대처행동에 어느 정도 일관된 성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대처행동 성향을 규명한 이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규명 연구나 아동의 대처행동과 어머니의 대처행동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에 편중된 자료만을 토대로 연구 분석 했다는 점과 부부갈등이나 자녀양육과 같은 대인지향의 가족 관계 스트레스 상황만을 한정하여 어머니의 대처행동만을 살펴보았다는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한 검증 작업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접 수 일 : 2005년 03월 25일
□ 심 사 일 : 2005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8월 01일

【참 고 문 헌】

강희경(2003).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31-38.

권영옥 · 이정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1),** 115-133.

김교헌 · 전겸구(1993). 중학생용 생활스트레스와 대처 척도의 개발 연구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2),** 197-217.

민하영(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 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민하영 · 유안진(2000).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상황간 일관성 및 내외 통제소재에 따른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8(10),** 15-26.

송말희(1990).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 정도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37.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미영 · 박혜인(1995). 전화 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문제와 대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3(1),** 141-155.

이선미 · 전귀연(2001).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03-221.

이영자 · 장영애(2002). 결혼초기 주부가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와 갈등관리 방법 및 갈등결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7(1),** 79-94.

이옥주(2004). 충동성과 대처양식이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 18(3),** 249-267.

전겸구 · 김교헌(2003). 한국 주부의 생활 스트레스와 대처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 1-39.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최정미 · 우희정(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3),** 361-369.

Abidin, P. R.(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298-301.

Beutler, L. E. & Moos, R. H.(2003). Coping and coping style in personality and treatment planning. *J. of Clinical Psychology, 59(10),* 1045-1047.

Carson, D. K., Swanson, D. M., Cooney, M. H., Gillum, B. J. & Cuningham, D.(1992). Stress and coping as predictors of young children's develop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Child Study Journal, 22,* 273-302.

Cohen, S., Tyrrell, D. A. J. & Smith, A. P.(1993). Life events, perceived stress, negative affect and susceptibility to the common cold.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131-140.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M.(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3, 405-411.

Costa, P. T., Somerfield, M. R. & McCrae, R. R.(1996). Personality and coping: Reconceptualization. In M. Zeidner & N. Endler(Eds.). *Handbook of coping: Theory, research, application,* 44-61. NY: John Wiley & Sons, Inc.

Ebata, A. T. & Moos, R. H.(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istress and healthy adolescence. *J.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3-54.

Frydenberg, E.(2004). Coping competences: What to teach and when. *Theory to Practice, 43,* 14-22.

Gamble, W. C.(1994). Perceptions of controllability and other stressor event characteristics as determinants of coping among you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 of Youth and Adolescence, 26(1),* 65-84.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receptive: The children perception of interperson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4,* 1829-1841.

Johnson, D. & Johnson, R.(2002). Teaching students how to cope with adversity. In E. Frydenberg(Ed.). *Beyond coping: Meeting goals, visions and challenges, 195-216.* UK: Oxford University Press.

Kaplan, R. M., Sallis, J. F. & Patterson, T. L.(1993). *Health and human behavior.* NY: McGraw-Hill.

Lazarus, R. S.(1991). *Emotion and adaptation.* NY: Oxford Univ. Press.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Lepore, S. J., Palsane, M. N. & Evans, G. W.(1991). Daily hassles and chronic strains: A hierarchy of stressor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3,* 1029-1036.

Moos, R. H. & Moos, B. S.(1992). *Life stressors and social resources inventory: Youth Form Manual.* CA: Center for Health Care.

Moos, R. H. & Schaefer, J. A.(1993).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Current concepts and measures. In L. Goldberg, & S. Breznitz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234-257. NY: Free Press.

Parker, J. D. A. & Endler, N. S.(1996). Coping and defense: A historical overview. In M. Zeider, & N. Endler, *Handbook of coping: Theory, research, application,* pp. 3-23. NY: John Wiley & Sons, Inc.

Roth, S. & Cohen, L. J.(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1,* 813-819.

Terry, D. J.(1994). Determinants of coping: The role of stable and situational factor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5),* 895-910.

Valentier, D. P., Holahan, C. J. & Moos, R. H.(1994). Social support, appraisals of event controllability, and coping: An integrative model.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6),* 1094-1102.